

인물화검사를 통한 영재아와 비영재아의 심리적 특성의 비교*

문 정 화

이 승 회

(한국영재교육연구소 소장)

(한국영재교육연구소 상담실장)

<目 次>

- I. 서론
- II. 연구방법
- III. 결과
- IV. 요약 및 논의

I. 서 론

인간의 그림을 통하여 성격을 측정하는 기술인 인물화 검사(DAP : Draw-A-Person Test)는 1926년 Goodenough가 아동들의 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에서 연유된다(Machover, 1951). Machover(1949)는 인물화 검사를 성격측정의 투사적 도구로서 발전시켰으며, 오오도모(大判, 1956)는 일본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인물화 검사의 분석 기준을 확립하였다.

인물화 검사는 대개 임상적인 상황에서 사용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그린다는 것은 환경내에서의 자아 혹은 자신의 신체상을 표현하는 것이다(Machover, 1951). Levey(1952)는 인물화를 자아개념, 환경내에서의 누군가에 대한 태도, 이상형(ideal image), 그리고 관습에 대한 투사이며 정서적인 색채의 표현이고 검사자에 대한 태도나 자신의 생활과 다른 이들에 대한 태도의

* 본 연구는 1992년 7월 대만에서 개최된 제2차 아시아지역 영재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것임.

표현이라 하였다.

비록 인물화 검사의 기술이 그 타당성에 있어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할 지라도, 그 해석 기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심리학자들 간에 많은 일치점을 보이고 있다 (Albee & Hamlin, 1949). Blum(1954)은 Machover의 인물화 검사의 타당성을 연구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다른 임상적인 성격검사 과정들과 비교했을 때에 타당도가 그렇게 낮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물화 검사에 있어서 한국의 영재 아동들과 비 영재 아동들 간에 그들의 심리적 특질을 나타내는 반응 양상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대상

피험자들은 서울 시내 국민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 174명이다(남아 101명과 여아 73명). 이들은 지능지수와 창의성 점수로 선발되었다. 지능지수에서 122이상의 점수를 얻고 동시에 창의성에서 128이상의 점수를 얻은 아동들 84명이 영재아 집단에 배치되었다. 지능지수 122이하이며 창의성에서 128이하의 점수를 얻은 아동 90명이 비 영재아 집단에 배치되었다.

2) 도구

영재아 집단과 비 영재아 집단을 구분하기 위하여 지능 검사와 창의성 검사가 모두 사용되었다. 지능 검사는 1971년 정범모와 김호권이 개발한 것으로서 다음의 다섯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어휘 사용, 언어 추리, 산술 추리, 수리적 추리, 그리고 도형 추리의 영역이다. 전체 지능지수에서의 신뢰도는 $r=.92$ 로 밝혀졌다.

창의성 검사는 1971년 이영덕과 정원식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다음의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개방성이다. 전체 창의성 점수의 신뢰도는 다양한 집단 내에서 $r=.70-90$ 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물화 검사를 분석하기 위하여 오오도모(大判)가 1956년에 개발한 분석기준

이 사용되었다. 그는 인물화로부터 성격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물화 그림을 17가지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영역은 모두 140개의 하위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3) 절차

아동들에게 81/2×11인치 크기의 백지를 나눠주고 사람의 모습 전체를 한명 그리라는 간단한 지시를 하여 인물화 검사를 실시하였다. 첫번째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또 다른 종이에 이미 완성된 그림의 반대 성(性)을 지닌 사람을 그리도록 하였다.

영재성-비영재성과 성차(性差) 및 영재성-비영재성과 성차간의 상호작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140항목 가운데 67항목에 대하여 이원변량분석을 하였다. 140항목 가운데 나머지 73항목은 분석되지 않았다. 67항목은 13개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그것들은 그림의 위치, 크기, 그림의 양상과 필체, 머리, 얼굴, 눈, 코, 입, 턱, 몸체, 귀, 팔, 다리, 그리고 기타 영역이다. 각각의 항목들은 한 개인의 성격, 행동, 환경등을 투사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67개의 항목들은 심리적 특성을 반영하는 9개의 범주로 구분된다. 그 범주들은 높은 자존감(항목 1, 4, 6, 9, 11, 15, 19, 22, 26, 29, 32, 37, 40, 41, 45, 47, 51, 53, 55, 57, 61), 낮은 자존감(항목 2, 3, 7, 8, 10, 14, 16, 17, 21, 24, 27, 34, 35, 38, 43, 44, 46, 56), 갈등(항목 31, 42, 49, 54, 59, 62), 좌절(항목 13, 23, 25, 28, 50, 60, 64, 65, 66), 신경증(항목 39, 58), 정신분열성(항목 12, 18, 36, 48, 63, 67), 조속함(항목 30, 33), 미성숙(항목 52), 신체적 장애(항목 20)등이다. 영재아 집단과 비영재아 집단, 그리고 남아 집단과 여아 집단 간 심리적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러한 9개의 범주들에 대하여 이원변량분석이 실시되었다.

Ⅲ. 결 과

<표 1>은 인물화 검사에 대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들을 요약한 것이다.

그림의 위치 - 항목 1에서 항목 8까지는 아동들이 종이에 그린 그림의 위치를

반영하고 있다. 영재아 집단보다 비영재아 집단이 ($F=6.053, p<.05$), 그리고 여아 집단보다 남아 집단이 ($F=4.192, df=1, p<.05$) 그림을 종이의 상단부분에 그리는 경향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비영재아 집단과 남아 집단이 영재아 집단과 여아 집단에 비하여 그들의 욕구를 상상을 통하여 나타내는 것임을 함축하는 것이다. 또한 영재아 집단보다 비영재아 집단이 그림을 종이의 상단부 좌측에 그리는 경향이 높았다 ($F=4.649, df=1, p<.05$). 이는 비영재아 집단이 영재아 집단보다 지적으로 덜 성숙되어 있으며 인지적 조망이 좁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비영재아 집단의 그림들은 영재아 집단의 그림보다 종이의 좌측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F=4.400, df=1, p<.05$), 여아 집단의 그림이 남아 집단의 그림보다 좌측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었다 ($F=5.601, df=1, p<.05$). 이러한 결과들은 비영재아 집단과 여아 집단이 상대적으로 수동적이며 내향적인 것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림의 위치에 대한 나머지 5개 항목들은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의 크기 - 항목 9부터 항목 12까지는 인물의 크기와 동성 인물의 크기를 다루고 있다. 비영재아 집단의 그림이 영재아 집단의 그림보다 그 크기에 있어서 작았는데 ($F=15.715, df=1, p<.001$), 이는 비영재아 집단의 아동들이 영재아 집단의 아동들보다 낮은 자존감과 더 많은 열등감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항목에서 남/여간의 성차는 보이지 않았다. 항목 11에 대하여 영재-비영재성과 성별간의 상호작용이 나타나긴 했으나 ($F=6.057, df=1, p<.05$), 영재성과 성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영재아 집단의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그들의 동성인물을 더 크게 그린 반면에, 비영재아 집단의 남아들보다 여아들이 그들의 동성 인물을 더 크게 그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영재아 집단내의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그들의 동성 인물을 더 작게 그린 반면, 비영재아 집단내의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그들의 동성 인물의 크기를 더 작게 그린 것으로 나타났다 ($F=9.777, df=1, p<.01$). 이러한 결과들은 영재아 집단의 남아들과 비영재아 집단의 여아들이 영재아 집단의 여아들과 비영재아 집단의 남아들보다 전통적인 성역할 정체감에 더욱 잘 적응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의 양상과 필체 - 그림의 양상과 필체는 항목 13에서 항목 18까지 내에서 분석되었다. 인물에서 동작이 나타나거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비영재아 집단보다 영재아 집단에서 더욱 많이 발견되었다 ($F=5.637, df=1, p<.05$). 이러한

결과는 영재아 집단이 비영재아 집단보다 그들의 욕구 성취에 있어서 더욱 불만족하며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영재아 집단의 아동들은 비영재아 집단의 아동들보다 더욱 강한 필체로 그린 경향을 보였으며($F=6.468$, $df=1$, $p<.05$), 비영재아 집단의 아동들은 상대적으로 아주 부드러운 필체와($F=4.302$, $df=1$, $p<.05$) 가는 선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F=26.764$, $df=1$, $p<.001$). 이러한 결과들은 영재아 집단의 아동들이 높은 자존감을 지니고 있는 반면 비영재아 집단의 아동들은 낮은 자존감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여아집단에 있어서 그림의 필체가 남아의 필체보다 더욱 부드러운 것으로 나타났는데($F=9.782$, $df=1$, $p<.01$), 이는 여아들의 자존감이 남아들보다 약하다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머리와 머리카락 - 항목 19에서 항목 23은 머리의 크기와 그림에 나타난 머리카락의 형상과 색을 다루고 있다. 머리의 크기에 있어서는 각 집단들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영재아 집단의 아동들보다 비영재아 집단의 아동들이 머리카락을 회미하게 그렸으며($F=13.438$, $df=1$, $p<.001$), 머리카락을 세워 그린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F=26.880$, $df=1$, $p<.001$). 남아 집단보다 여아 집단이 머리카락을 회미하게 그리고($F=5.998$, $df=1$, $p<.05$), 머리카락을 세워 그린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F=4.854$, $df=1$, $p<.05$). 이러한 결과들은 비영재아 집단의 아동들과 여아 집단이 자신감이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임을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아 집단보다 남아 집단이 머리카락을 표현함에 있어서 어둡거나 검게 표현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는데($F=7.034$, $df=1$, $p<.01$), 이는 남아들이 더 많은 불안감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얼굴 - 항목 24에서 항목 25까지는 그림의 얼굴에 나타난 반응을 다루고 있다. 영재아집단의 아동들에 비해서 비영재아 집단의 아동들이 얼굴의 윤곽을 회미하게 그리는 경향이 높았는데($F=12.710$, $df=1$, $p<.001$), 이는 비영재아 집단 아동들의 자존감이 영재아 집단의 아동들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여아 집단보다 남아 집단이 얼굴에 그림자를 그리거나 주름을 그리는 경향이 자주 나타났는데($F=5.407$, $df=1$, $p<.05$), 이는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더 많은 좌절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눈 - 항목 26에서 항목 29는 눈의 크기, 눈의 유무, 눈의 색채등을 다루고 있

다. 영재아 집단과 비영재아 집단간에서 항목 27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영재아 집단의 그림에서보다 비영재아 집단의 그림에서 작은 크기의 눈이 더 자주 발견되었는데 ($F=4.135$, $df=1$, $p<.05$), 이는 영재아 집단의 아동들보다 비영재아 집단의 아동들의 경우 외부세계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경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코 - 항목 30에서 항목 32는 코에 대한 반응을 다루고 있다. 영재아 집단의 아동들이 비영재아 집단의 아동들보다 큰 코, 혹은 명암이 있는 코를 더 자주 그리는 경향을 나타냈다($F=4.059$ $df=1$, $p<.05$). 이는 영재아 집단의 아동들이 더 조속하고 그들의 이성(異性)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 - 항목 33에서 항목 36은 입의 크기, 모양, 치아와 혀가 보이는가등을 다루고 있다. 입을 작게 그리는 경향은 남아들의 그림보다는 여아들의 그림에서 더 자주 나타났다($F=22.696$ $df=1$, $p<.001$). 이는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다소 소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여아들보다 남아들이 혀나 치아를 보이게끔 그리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F=16.928$ $df=1$, $p<.001$). 이는 남아들이 좌절상황에 대하여 우울해하고 불안감을 느끼는 경향이 높고 그래서 그들의 유아기로 퇴행하려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턱과 몸체 - 항목 37, 38은 턱의 넓이와 크기를 다루고 있고, 항목 42와 43은 몸체의 넓이를 다루고 있는데, 이들 항목들에 있어서 각 집단 간에 그 어떤 유의미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귀 - 항목 39에서 항목 41은 귀의 크기와 귀의 유무를 다루고 있다. 여아들은 남아들보다 귀를 작게 그리는 경향이 있었다($F=4.585$ $df=1$, $p<.05$). 또한 비영재아 집단의 아동들이 영재아 집단 아동들보다 귀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다($F=11.513$ $df=1$, $p<.01$). 이러한 결과들은 여아 집단의 아동들과 비영재아 집단의 아동들이 남아 집단이나 영재아 집단의 아동들보다 타인의 말에 귀기울이는 경향성이 더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팔과 손 - 항목 44에서 항목 48은 팔의 형상과 위치를 다루고 있으며, 항목 49에서 항목 51은 손의 유무와 손의 크기 그리고 손의 형상등을 다루고 있다. 여아 집단이 남아 집단보다 팔을 더욱 가늘게 그린 반면($F=4.215$, $df=1$, $p<.05$), 남아 집단이 여아 집단보다 팔을 더욱 넓게 그리는 경향이 나타났다($F=6.475$,

df=1, $p < .05$). 이러한 결과들은 여아 집단이 남아 집단보다 더욱 열등감을 많이 느끼며, 남아 집단이 여아 집단보다 관심을 끌려는 경향과 욕구를 더욱 많이 나타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아 집단의 그림에서보다 여아 집단의 그림에서 팔을 몸체에 붙게 그린 경향이 많이 나타났고($F=5.131$, $df=1$, $p < .05$), 팔을 뒤로 돌리거나 손을 감춘 그림이 자주 나타났다($F=8.973$, $df=1$, $p < .01$). 이러한 결과들은 여아 집단이 더 수동적이고 방어적이며 뭔가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아 집단보다 남아 집단의 그림에서 주먹권 손의 그림이 많이 나타났으며($F=9.843$, $df=1$, $p < .01$), 영재아 집단보다 비영재아 집단에서 그러한 경향이 많이 나타났다($F=7.296$, $df=1$, $p < .01$). 이러한 결과들은 남아 집단과 비영재 집단이 상대적으로 억압된 공격성을 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손을 생략하는 것은 남아 집단보다 여아 집단에서 더 많이 나타났는데($F=8.725$, $df=1$, $p < .01$), 이는 여아 집단이 남아 집단보다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더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다리와 발 - 항목 52, 53, 54는 다리에 대한 반응을 다루고 있는데 각 집단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항목 55에서 항목 59는 발의 크기, 모양, 발의 유무등을 다루고 있다. 여아 집단보다 남아 집단이 비교적 발을 그린 반면($F=11.474$, $df=1$, $p < .01$), 남아 집단보다 여아 집단이 더 작게 발을 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F=16.186$, $df=1$, $p < .001$). 이러한 결과들은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안정에 대하여 더욱 강한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여아들이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부족하고 그들의 의존적인 성격을 나타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기타 - 항목 60에서 항목 67은 더욱 자세한 것들을 다루고 있다. 주머니나 단추의 강조는 남아 집단보다 여아 집단의 그림에서 더 자주 나타났는데, 이는 여아 집단의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더욱 타인으로부터의 애정을 요구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영재아 집단보다 영재아 집단의 그림에서 높게 솟은 어깨를 그리는 경향이 많이 나타났는데($F=7.450$, $df=1$, $p < .01$), 이는 영재아 집단의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더욱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인물이 되고 싶어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여아 집단보다 남아 집단의 그림에서 나체 그림이 더 많이 나타났는데($F=4.944$, $df=1$, $p < .05$), 이는 남아 집단의 아동들이 더 자주 비정상적인 생각에 빠진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영재아 집단의 그림에서

측면상이 많이 나타났다($F=5.919$, $df=1$, $p<.05$). 또한 여아 집단보다 남아 집단의 그림에서 손에 뿔가를 쥐고 있는 그림이 많이 나타났다($F=8.073$, $df=1$, $p<.01$). 이러한 결과들은 영재아 집단과 남아 집단이 비영재아 집단과 여아 집단보다 더욱 많은 좌절을 경험한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심리적 특성들 - 67개의 항목을 심리적 특성범주 9개로 분류하였을 때, 그 중 3개의 영역만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영재아 집단보다 비영재아 집단이 낮은 자존감을 나타냈으며($F=27.375$, $df=1$, $p<.001$), 남아 집단보다 여아 집단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존감을 나타냈다($F=12.024$, $df=1$, $p<.001$). 남아 집단의 그림이 더욱 많은 좌절감을 나타냈으며($F=7.121$, $df=1$, $p<.01$), 우울감, 편 집적인 성향, 정신증적인 성향등의 증상을 더욱 많이 나타냈다($F=7.725$, $df=1$, $p<.01$).

부모관계 - 여아 집단이 남아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들의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 더욱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F=16.048$, $df=1$, $p<.001$),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냈다($F=9.870$, $df=1$, $p<.01$).

정신분열증, 신경증적인 성향, 조속함, 미숙함, 신체적인 장애감등의 영역에 있어서는 각 집단간 아무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IV. 요약 및 논의

남아들은 여아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존감을 보이거나 반면 더 많은 불안과 좌절을 나타냈다. 비록 남아들이 활동적이고 더욱 관심을 끌려고 하나, 그들은 억압된 좌절감과 갈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욱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하며 그러한 좌절을 퇴행과 유아적인 행동으로 보상하려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여아들을 통해서보다는 남아들을 통해서 학업적인 영역이나 그 외의 영역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부모들로부터의 기대의 결과일 수 있다. 그러므로 남아들은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고 따라서 좌절감이 따르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여아들은 남아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자존감을 지니고 있으며 수동적이고, 방어적이며, 내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들보다 여아들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들의 그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그들은 무기력감과 부적응감, 심지어는 죄책감마저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아들은 남아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욱 긍정적인 부모상(父母像)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들이 그들의 어머니에 대하여 갖는 관계는 아버지와 갖는 관계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아 집단은 비영재아 집단보다 생대적으로 높은 자존감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은 높은 창의성 점수를 지닌 학생들이 더 높은 자기 가치감을 갖는다는 것을 보고한 최진이(199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학문적 성취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고한 Coopersmith(1967)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모두 수년간에 걸친 학업수행에서의 성공이 높은 자존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문정화, 1991).

영재아 집단은 환경내에서 갈등과 좌절을 경험하며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이고 충동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아들이 매우 민감하고 높은 수준의 열망, 또래나 형제 자매들과의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Webb Meckstroth & Tolan, 1982). 아마도 이러한 것은 영재아동들의 높은 수준의 창의성과 그들에 대한 타인들의 높은 기대로부터 연유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들은 현실적으로 더욱 많은 갈등과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비영재 집단은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부족하고 낮은 자존감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그들은 과거지향적이고 수동적이고 유아와 같은 퇴행성을 보이고 있으며 상상을 통하여 그들의 열등감을 보상하고 싶어하며 성공에 대한 욕구를 보이고 있고 좁은 인지적 조망 속에서 타인의 의견에 귀기울이지 않으려는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지능과 자아개념 간의 관계를 연구하여 비영재아 집단 아동들의 자아개념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밝힌 연구결과들과 상응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Ke(1988)와 Ruth(198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들이 아직 탐색적이긴 하지만, 영재아 집단의 아동들과 비영재

아 집단의 아동들 그리고 남아 집단의 아동들과 여아 집단의 아동들 간의 자존감, 부모와의 관계, 좌절등에서 집단간 차이를 밝힌 것에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들이 아동들을 도우려는 부모들과 교사들,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표1〉 인물화 검사 점수에 대한 이원 변량분석 요약

항 목	번호	그림의 내용	영 재 성	성 별	영재성×성별
위치	1.	상단부	6.053*	4.192*	1.245
	3.	좌측	4.400*	5.601*	.421
	5.	상단좌측	4.649*	.107*	1.245
크기	10.	작은크기	15.175***	3.834*	.302
	11.	동성인물의 큰 크기	.904*	.007*	6.057*
	12.	동성인물의 작은 크기	.005*	.185*	9.777**
양상/필체	13.	움직임이 수반된 그림	5.637*	.253*	2.706
	15.	강한 필체	6.486*	.231	.423
	16.	부드러운 필체	4.302*	9.782**	7.121**
	17.	가느다란 필체	26.764***	.288	2.161
머리	21.	모호한 머리카락	13.438***	5.998*	.029
	22.	위로 세운 머리카락	26.880***	4.854*	6.249*
	23.	어둡거나 검은 머리	.277	7.034**	.340
얼굴	24.	희미한 윤곽의 얼굴	12.710***	.340	3.864
	25.	명암이 있는 얼굴	.001	5.407*	.057
눈	27.	작은 눈	4.135*	.039	1.666
코	30.	명암이 있는 큰 코	4.059*	.063	.128
입	34.	매우 작은 입	1.258	22.696***	5.795*
	36.	혀나 이가 보임	.691	16.928***	.074
귀	40.	작은 귀	1.138	4.585*	.216
	41.	생략된 귀	11.513***	.008	.006
팔	44.	가느다른 팔	1.387	4.215*	.969
	45.	넓게 열린 팔	.388	6.475*	.667
	46.	몸체에 붙은 팔	2.103	5.131*	.293
	48.	숨겨진 팔이나 손	.353	8.973**	.018
	49.	생략된 손	.963	8.725**	.129
	50.	주먹쥔 손	7.296**	9.843**	2.002
다리	55.	큰 발	.198	11.474***	.049
	56.	작은 발	3.306	16.186***	.063
기타	60.	주머니나 단추 강조	.560	11.339***	.600
	61.	높이 솟은 어깨	7.450**	2.133	1.559
	63.	나체 혹은 불균형한 몸체	.578	4.944*	.074
	64.	측면상	5.919*	.042	2.805
	65.	뒎가 권 손	.882	8.073**	.039
심리적 특성	1.	낮은 자존감	27.375***	12.024***	.829
	2.	좌절감	.245	7.121**	2.017
	3.	정신분열성 혹은 혼란	1.597	7.725**	1.056
	4.	어머니에 대한 긍정적 태도	.699	16.048***	.399
	5.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 태도	1.864	9.870**	.303

* p<.05 ** p<.01 *** p<.001

References

1. Alvee, G., & Hamlin., R. M. (1950). Judgments of Adjustment from Drawings : The Application of Rating Scale Methods. J. Clin. Psycho., 6, pp. 353-365.
2. Blum, R. H. (1954). The Validity of the Machover DAP Technique : A Study in Clinical Agreement. J. Clin. Psychology, 10, pp. 120-125.
3. Choi, J. L. (1990). Effect of IQ, Sex,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n Creativity : A Comparison of High IQ Children and Average IQ Children Ewha Woman's University, Unpublished.
4. Chung, W. & Kim, H. (1971). Guide to general IQ Test for elementary children. Seoul : Korean-Testing Center.
5.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francisco : freeman
6. Ke, P. S. (1988). A study of Self-Concept among Mildly Mentally Retarded Children, Normal Children, and Gifted Children in Taipei City, Taiwan, Republic of China. Univ. of Northern Colorado, p. 97.
7. Lee, Y. D., & Chung, W. S. (1971). Creativity Test for elementary children. Seoul, : Korean Testing Center.
8. Levy, S. (1950). Figure Drawing as a Projective Test. Projective psychology, Ed. Abt. L. & Bellak, L. New York : Knepf. in *Theory and practice of psychological tests*. (Ed.). Young-Sook, Park (1982). Seoul : Samil-Dang Co.
9. Machover, K. (1951). Drawing of the Human Figure : A Method of Personality Investigation, in An Introduction to Projective Techniques. (Eds.). Harold H. Anderson & Gladys L. Anderson, Prentice-Hall Inc.
10. Moon. J. (1991). Korean Gifted and non-gifted children's attitudes toward family, teacher, friend and self as seen through sentence completion test. Paper presented at the 9th World Conference on Gifted and Talented Children, the Hague, the August, 1991.

11. Ruth, S. P. (1989). Personality and Superior IQ : Measures of Gifted and Nongifted Children. University of Texas Southwestern Medical Center at Dallas.
12. Webb, J. T., Meckstroth, E. A., & Tolan, S. S. (1982). Guiding the gifted child : A practical source for parents and teachers. Columbus, Ohio : Ohio Psychology Publishing Company.